

‘10억 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10억 팔’ 한기주가 삼성 유니폼으로 돌아왔다. 지난 2006년 KIA 1차 지명으로 고향팀에 입단했던 한기주는 계속된 부상으로 고전한 끝에 외야수 이영욱과 맞트레이드로 제2의 야구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한기주 내주고 삼성 외야수 이영욱 영입

‘10억 팔’에서 ‘아픈 손가락’이 된 투수 한기주가 삼성에서 재기의 길을 찾는다.

KIA 타이거즈가 29일 투수 한기주(30)와 외야수 이영욱(32)을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고향팀 유니폼을 입었던 한기주는 삼성에서 제2의 야구인생을 연다.

한기주가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역대 최다인 10억원의 계약금을 안고 KIA 유니폼을 입을 때만 해도 그가 팀은 물론 한국 야구를 이끌어 갈 기대주가 될 것이라는 걸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그러나 타고난 재능과 10억이라는 계약금은 한기주의 미래를 막은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팔꿈치가 온전치 않았던 그는 수술과 재활의 갈림길에 선 채 마운드와 마주했다. 무거운 책임감까지 한기주의 어깨를 누르면서 결국 그는 재활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그의 절주를 막던 팔꿈치 인대에 칼을

한기주

2006년 계약금 10억 KIA 행

팔꿈치·어깨 수술·재활 반복

올 시즌 한 번도 1군 못 밟아

됐지만 이유 모를 손가락 통증에 시달리던 그는 이후 두 차례 손가락 수술을 받았다. 시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선수 생명을 놓고 힘겨운 고민을 하던 그는 결국 어깨 수술을 위해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2015년 7월 16일, 한기주는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 등판해 1064일 만에 마운드에서 공을 던졌다. 한기주는 자신의 야구 시계가 다시 돌아가던 날 “마운드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았다”고 웃었다.

“나쁘지 않았다. 랜팜다”던 한기주는 2016년 스프링캠프에 이름을 올리면서 4



이영욱

년 만에 캠프에 참가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새 시즌을 맞는다는 설렘 보다는 ‘또 아프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한기주의 머리를 채웠다.

“이번에도 아프면 야구를 그만해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할 자신이 없다”며 캠프로 떠났던 한기주는 이해 볼 애를 태우던 팬들을 웃게 했다.

4월 12일 SK 와이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중간 투수로 등판, 타자들의 역전소로 1462일 만에 승리투수가 된 그는 4월 14일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1401일 만에 세이브를 수확했다. 그리고 4월 2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에서는 선발로 깜짝 등판해 타선의 도움 속에 16~10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1688일 만의 선발승이었다.

잊지 못할 생일도 보냈다. 자신의 생일이었던 4월 29일 두산 베어스를 5.20닝 1실점으로 제압하면서 생일을 자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봄은 짧았다. 팀이 우승 행진을 하던 올 시즌 한기주는 스프링캠프에서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뒤, 한 번도 1군 무대를 밟지 못했다.

신에 선수들의 경쟁으로 치열해진 마운드, 불운이 계속되면서 한기주는 새 팀에서의 새 출발을 생각했다. 구단도 한기주의 명예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새 길을 찾아주는 데 애를 썼었다. 그 결과 KIA를 대표하던 이름 한기주는 삼성 선수가 됐다.

영예와 고통이 교차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 출발선에 선 한기주는 “많은 기대를 받고 고향팀에 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다. 팬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것만 생각하고 떠나겠다”며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프지 않고 마음껏 공을 던져보는 게 소원이다. 기회라고 생각한다.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운드에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백인사를 고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대체자 찾아야”

피츠버그 매체들, 방출 소식에 실망감

음주 운전으로 2017시즌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무더진 실전 감각으로 결국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서 방출되자 피츠버그 매체들이 실망감을 나타냈다.

‘파이리츠 브레이크다운’은 29일(한국시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오프시즌 움직임을 다룬 기사에서 강정호의 방출 소식을 전했다.

강정호는 실전 감각 회복을 위해 피츠버그 구단의 도움을 받아 도미니카 윈터리그의 아길라스 시바에나스에 입단했다.

하지만 그는 24경기에 출전해 타율 0.143(84타수 12안타) 1홈런에 그쳤고, 3루수로는 178이닝에서 실책 4개로 불안감을 노출해 결국 방출됐다. 삼진은 31차례나 당했고 OPS(장타율+출루율)는 0.421에 그쳤다.

‘파이리츠 브레이크다운’은 이런 성적을 소개하면서 “강정호가 팀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내야수를 잘 찾아봐야 한다”고 적었다.

이는 원론적인 언급일 수도 있지만, 이 매체는 “강정호가 라이브 피칭을 1년

간 경험하지 못했으니 실전에서 생산성이 낮은 게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이 이렇게 예를 먹었다고 단기간에 그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여 강정호를 대신할 3루수 재원 영입에 신경 써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 역시 저조한 성적을 소개하면서 “강정호의 겨울 야구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아 조기에 마감됐다”고 적었다.

‘콜 투 더 펜’은 “피츠버그는 강정호가 윈터리그에서 감각을 잘 회복해 2018시즌에는 정상적으로 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는 결국 부진으로 한 달 먼저 짐을 쌌다”며 “메이저리그 선수가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방출되는 것은 드물지 않다. 도미니카 윈터리그는 선수들의 실력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이기기 위해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것인데, 강정호가 팀에 도움이 안 되니 내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강정호가 과연 미국 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2018시즌 메이저리그에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태권도 이대훈 ‘두 토끼 사냥’

월드그랑프리 3연패·올해의 선수 도전

한국 태권도 간판스타 이대훈(25·한국가스공사)이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월드태권도 그랑프리파이널 대회 3연패를 달성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 ‘올해의 선수’로 다시 우뚝 서는 것이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12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팔레 드 스포츠 경기장에서 2017 월드태권도 그랑프리파이널을 개최한다. 이어 5~6일에는 같은 경기장에서 월드태권도팀선수권대회를 치른다. 12월 4일에는 아비장 레다스호텔에서 2017 세계태권도연맹 갈라 어워즈 행사를 연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지난 9월 모로코에서 그랑프리 시리즈(2차 대회)가 최초로 개최됐지만 왕중왕전 격인 그랑프리파이널과 시상식 갈라 어워즈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월 올림픽랭킹 기준으로 남녀 각 4체급에서 상위 16명이 초청된 이번 그랑프리파이널에는 총 42개국에서 124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다.

이대훈은 남자 68kg급에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이대훈은 남자 68kg급에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이대훈은 남자 68kg급에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이대훈은 남자 68kg급에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이대훈은 남자 68kg급에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이대훈은 남자 68kg급에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이대훈은 남자 68kg급에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해 시리즈 1·2차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월드그랑프리에서만 통산 7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2015년과 지난해 파이널에서 모두 정상에 오른 것을 비롯해 2015년 시리즈 3차 대회부터 올해 2차 대회까지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시리즈 3차 대회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느라 뛰지 못한 이대훈은 이번 파이널 대회 3연패 및 통산 8번째 월드태권도 그랑프리파이널에 도전한다. 올해 무주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한 이대훈은 갈라 어워즈의 최대 관심사인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유력한 수상 후보다.

올해의 남녀 선수는 무주 세계선수권대회와 파이널을 포함한 올해 4차례의 월드그랑프리 대회에서 2회 이상 우승한 선수를 대상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 코치, 심판이 갈라 어워즈 현장에서 투표해 선정한다.

이대훈은 이미 세계연맹이 처음 시상한 2014년에 이어 2015년에 2년 연속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리우올림픽에서 이대훈을 꺾은 요르단의 아부가우시가 올해의 남자 선수로 뽑혔다. /연합뉴스

야속한(?) 오키나와 날씨 “쉬는 날만 비오네”



선수들을 헛웃음 짓게 한 오키나와의 ‘맞춤형 날씨’였다.

KIA 타이거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진행했다. 11월 오키나와는 우리나라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운동하기에 최적의 날이다.

이곳에서 마무리캠프와 스프링캠프를 치르는 KIA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비’다. KIA가 캠프지로 사용하는 긴 구장은 실내연습장이 없다. 비 예보가 있으면 웨이트 등으로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다른 팀 실내 연습장을 빌려야 한다.

그러나 정회열 퓨처스 감독은 날씨

걱정 없이 이번 캠프를 지휘했다. 캠프 중반 흐린 날씨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훈련에는 지장이 없었다.

“훈련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좋은 날씨였다”고 웃은 정 감독과 달리 선수들은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비가 풀리자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휴식일에만 비가 내린 탓이다. 고된 훈련을 하루 쉬어갈 수 있는 단비가 내리기는커녕 휴식일만 축축 풀리자 많은 비가 쏟아지다 보니 선수들에게는 야속한 비가 됐다.

캠프에서 마지막 휴식일이었던 지난 26일에도 오키나와에는 꽤 많은 양

의 비가 내렸다. 27일 훈련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았지만, 선수들이 이른 점심을 먹는 사이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비에 젖었던 운동장은 이내 컨디션을 회복했고 훈련은 무리 없이 진행됐다. 이후 캠프에서의 마지막 훈련이 진행됐던 29일까지 오키나와는 최고 기온 26도의 맑은 날이 이어졌다.

선수들에게는 아쉬웠던 날씨였지만 KIA의 마무리 캠프는 하늘의 도움 속에 큰 부상과 사건·사고 없이 마지막 훈련을 끝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차기 총재에

정운찬 전 총리 추천



KBO 이사회가 정운찬(사진) 전 국무총리를 제22대 KBO 총재로 추천하기로 했다.

KBO는 29일 2017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정관 제10조 임원의 선출에 관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KBO이사회는 12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구본능 총재의 후임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제22대 KBO 총재로 총회에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실질적인 총회를 열기는 어려워, 조만간 서면 결의 방식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정운찬 총재 추천자가 총회를 통과하면 2018년 1월 1일부터 3년동안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게 된다.

이날 이사회에는 구본능 KBO 총재와 박한우 KIA 타이거즈 대표, 전봉 두산 베어스 대표, 김장락 롯데 자이언츠 대표, 이태일 NC 다이노스 대표, 류준열 SK 와이번스 대표, 신문범 LG 트윈스 대표, 최창복 넥센 히어로즈 대표, 김신연 한화 이글스 대표, 유대열 kt wiz 대표, 양혜영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 라이온즈 김동환 대표를 KBO 구본능 총재에게 의결권을 위임했다.

정운찬 KBO 총재 추천자는 널리 알려진 야구광이다. 특히 두산 팬으로, 라디오 특별 해설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평창 패럴림픽 개막 100일 앞으로



2018 평창패럴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 개막(3월 9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위원회는 개막 100일을 앞둔 29일 경기도 이천시 대안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 ‘G-100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패럴림픽 준비과정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했다.

‘패럴림픽의 성공, 진정한 올림픽의 완성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선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동계패럴림픽의 의미를 알렸다.

훈련원 행동동 앞에서 열린 패럴림픽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막행사에선 약 300명의 참석자가 ‘100’이라는 대형 인

간 문자 퍼포먼스를 펼쳤다. 아울러 장애인아이스하키와 휠체어 컬링 등 동계스포츠 종목 체험행사도 이어졌다.

전 세계 장애인 동계스포츠 선수들의 도전과 용기, 열정의 장이 펼쳐질 행사를 기대한다.

평창패럴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 개막(3월 9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행사에 참석한 이회범 조직위원장은 “평창패럴림픽은 문화적 장벽이 없는 문화 패럴림픽으로 희망과 평화의 제전이 될 것”이라며 “남은 100일의 기간 동안 모든 열정과 역량을 모아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가수 정용화와 걸그룹 AOA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아울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성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휠체어 컬링 10명), 이천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한편 패럴림픽 성화는 3월 2일 국내 지역 5곳과 외국 3곳 등 총 8곳에서 동시에 채화행사를 할 예정이다. 외국에서 채화된 성화는 영상으로 전달된다.

이어 개막일인 3월 9일까지 총 8일 동안 국내 80km를 800명의 주자가 봉송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숫자 8을 옆으로 하면 무한대(∞)가 되는데, 이는 장애인 선수들의 무한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